

동화부문 심사평*

박상률

응모한 작품 대부분이 '5·18'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그날 있었던(혹은 있었음직한) 일을 일지 식으로 기록하기에 급급했다. 문학은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다. 역사학자가 기록하지 못한 미세한 결을 찾아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작가가 할 일이다. 그러하기 위해선 그 사건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파고들고 인물과 사건의 자연스러운 조합으로 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진상을 알리기 위해 사건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는 감동을 주기 어렵다.

많은 작품이 주제에만 너무 매달렸다. 그러한 까닭에 뼈만 있고 살은 없는 몰골이었다. 게다가 아이들을 독자로 하였기에 계몽성과 교훈성을 너무 의식하였다. 말하자면 독자에게 한 수 가르치려 든 것이다. 좋은 작품은, 그게 어른을 독자로 한 작품이든 아이들을 독자로 한 작품이든 작가의 생각이 바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작가는 등장인물의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어야 한다. 오로지 등장인물들만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하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티 안 나게 전달되어야 한다.

동화 역시 문학이다. 문학인 이상 문학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학은 언어를, 그것도 작가의 모국어(를 도구로 삼아) 예술적 형상화를 꾀한다. 기본적인 문장력은 물론 맞춤법 따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이들이 읽는 작품이라 해서 '대충'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주 독자이기에 일반 문학보다 오히려 더 완벽한 문장을 써야 한다.

마지막까지 눈여겨 본 작품은 '순이의 오월', '끝나지 않을 이야기', '강아지 무덤'이다.

'순이의 오월'은 상당히 공을 들인 흔적은 보이나, 기왕에 소개되었던 '광주 소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대학가 앞 하숙집을 인연으로 한 인물들의 활동상을 담은 이야기인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의아함을 자아냈다. 우선 새로 하숙집을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광주로 이사하는 가족을 설정했는데 별다른 의미가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나씩 차례로 등장하는 인물 모두 상투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순이의 오월'이라는 제목에서 상투성을 예고하고 있었다.

'끝나지 않을 이야기'는 이야기를 시작할 만한 동기는 들어 있으나 형상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도식적이

었다. 뭔가 차림새부터 수상쩍어 보이는 이웃 아저씨가 알고 보니 ‘5·18’ 때 죽은 형을 생각하며 형처럼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환경운동가가 되어 살고 있다. 그런 인물을 바라보는 이웃 아이의 의심스런 눈초리. 그러다 마침내 자기 아빠가 ‘5·18’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그 아저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줌으로써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광주에 대해 직접 설명이 많고 인물의 성격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강아지 무덤’은 ‘5·18’ 때 군인이었던 아빠를 둔 아이들 이야기이다. 아빠는 옛 기억 때문에 삶이 몹시 피폐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바퀴벌레 하나도 잡지 못한다. 이런 것 모두가 예전의 일 때문이다. 슬민이는 아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실수로 강아지가 죽자 강아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마침내 아빠의 처지도 이해하게 된다. 이 또한 도식적인 구성이다. 게다가 아빠의 고뇌가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고 슬민이의 고민도 작위적이다.

이번 응모작 가운데에서는 ‘5·18’에 값하는 수준을 갖춘 작품을 고르기가 힘들었다. 응모자들이 애쓰는 바를 모르진 않지만 아쉽게도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